

# 『耆社契帖』의 「景賢堂錫宴圖」에 보이는 인물들의 복식 고찰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f Court Dresses Shown in Scene of the Royal Banquet Given by the King at *Gyeong-hyeon-dang* of *Gisagyecheop*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07. 10. 22 투고)

### ABSTRACT

This study reports a court dress culture in 1719 shown in the Scene of a Royal Banquet given by the King at *Gyeong-hyeon-dang*(景賢堂) of *Gisagyecheop*(耆社契帖).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ing *Suk-jong*(肅宗) attending a Royal Banquet for members of the Hall of Elder Statement wore the *Ikseonkwan* decorated with flowers, red *Gollyongpo*, *Okdae*, and *Heukpiwha*. The Crown Prince(王世子) also wore the *Ikseonkwan* decorated with flowers, black *Gollyongpo*, *Okdae*, and *Heukpiwha*.

Second, senior statesmen(耆老臣) over the age 70 wore *Samo*, *Heukdallyeong* with a crane rank tablet, belt, and black boots. Royal family members and officers also wore *Samo*, *Heukdallyeong* with a crane or silver pheasant rank tablet, belt, and black boots.

Third, *Sakum*(司禁) of King's body guards wore *Yungbok* and *Muyaebulgam*(武藝別監) wore *Ja-geon* and the green *Jikryeong*. *Ui-jang-gun*(儀仗軍) wore *Pirip* and *Hongui*, *Haengjeon*, and *Unhae*. *Saboksikwan*(司僕寺官) wore *Samo*, *Heukdallyeong*, belt, black boots, and a sword.

Fourth, boy dancers(舞童) wore *Buyongkwan*, *Kwanbok*, skirt, belt, and black boots. *Cheoyong-dancers*(處容舞童) wore outfits in fine colors, wide pants, skirt, mask with an earring, gold colored belt, and white colored sandal. *Hyeopryulrang*(協律郎) wore *Samo* and *Heukdallyeong*. *Jipbak*(執拍) wore *Morabokdu* and *Noksai*, and *Ak-kong*(樂工) wore *Whawhabokdu*, *Hongju-ui*, *Ojungdae*, and *Heukpiwha*. *Singer*(歌童) wore *Jajeok-dugeon*, *nokju-ui*, and *jajeokdae*.

Key words: *Gisagyecheop*(耆社契帖), Scene of the Royal Banquet given by the King at *Gyeong-hyeon-dang*(景賢堂錫宴圖), Senior statesmen over the age 70(耆老臣), a court dress culture(宮中服飾文化)

## I. 머리말

숙종(肅宗)은 59세가 되던 기해년(1719) 2월에 태조가 60세(1394)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는 고사(故事)에 근거하여 기로소(耆老所)에 입소(入所)하였다.

1월 27일 기로소에 들어가는 행사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일련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2월 11일에는 경덕궁(慶德宮) 흥정당(興政堂)에서 『기로소서첩(耆老所御帖)』을 기로소에 봉안하는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다음 날인 12일에는 승정전(崇政殿)에서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축하하는 진하(陳賀) 행사가 열렸다. 이어 4월 18일에는 경현당(景賢堂)에서 기로신들을 위한 기로연이 거행되었는데 숙종과 이듬해 경종으로 등극하는 왕세자, 그리고 10명의 기로신(耆老臣), 재신(宰臣), 집사자(執事者) 등이 참여하였다. 이 기로연은 태조 이후 300년 만에 처음으로 왕이 기로소에 들어간 경사(慶事)를 축하하면서 기로신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기로연은 보통 궁 밖에서 거행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기해년 4월의 기로연은 궁궐 내에서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궁중의 잔치가 되었다. 그리고 국왕의 친림 아래에 베풀어졌다는 점에서 국가 의례로 시행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사실은 숙종대의 친림 기로연이 단순히 국로(國老)를 우대하기 위해 시행한 행사 이상의 주요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음<sup>1)</sup>을 의미한다. 이 행사의 모습은 『기사계첩(耆社契帖)』의 제7면에 실린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sup>2)</sup>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기해년 숙종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기 위해 치러진 경현당(景賢堂) 기로연과 관련된 자료로는 『기사계첩』을 비롯하여 『숙종실록(肅宗實錄)』<sup>3)</sup>이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 28일 숙종의 보령 육순(六旬)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진연을 기록한 『기해진연의궤(己亥進宴儀軌)』<sup>4)</sup>도 경현당 기로연 행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최근 고궁 활용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그 안에서 행해졌던 궁중의례를 재현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할 때 행사 참여자들의 복식 고증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선

숙종대의 기로연 행사 재현에 활용될 수 있는 복식 고증 콘텐츠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사계첩』을 중심으로 복식과 관련된 선행연구<sup>5)</sup>가 있기는 하지만 관리들의 상복(常服)과 반상복(班常服), 여복(女服)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1719년 4월 18일 경현당에서 치러진 친림 기로연에 참여한 인물들, 즉 왕과 왕세자, 기로신, 종친과 재신들, 그리고 집사관들과 협률랑, 전악, 악공, 무동 등 정재관련 인물들의 복식을 『기사계첩(1720)』의 「경현당석연도」와 『기해진연의궤(1719)』, 그리고 궁중행사 관련 기록과 18세기 전기 유물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기사계첩』의 「경현당석연도」의 사료적 성격

### 1. 1719년 4월 기로연과 『기사계첩』

숙종 45년(1719) 1월 10일, 전(前) 직장(直長) 이즙(李楫)이 세자(경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숙종이 즉위한지 45년이 되는 해이고 내년에 육순(60세)이 되어 기로소에 들어가게 되므로 미리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이 군부(君父)에 대한 신자(臣子)로서의 도리<sup>6)</sup>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1월 27일에 기로소에 들어가는 행사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월 11일에는 경덕궁(慶德宮) 흥정당(興政堂)에서 『기로소서첩(耆老所御帖)』을 기로소에 봉안하는 행사를 거행되었다.<sup>7)</sup> 다음 날인 12일에는 승정전(崇政殿)에서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축하하는 진하(陳賀) 행사가 있었으며 4월 18일에는 경현당에서 기로연이 열렸는데<sup>8)</sup> 그 과정은 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이날 병석에 있던 숙종은 시사복(視事服)인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고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세자가 기로신들을 거느리고 사배(四拜)를 올린 다음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숙종과 왕세자(경종)의 찬안상(饌案床)이 배설되고 왕과 왕세자에게 꽃을 올렸다. 숙종에게 먼저 제1작이 올려지면 '천년만세(千年萬歲)'가 연주되고 무동이 들어와 춤을 추고 왕세자와 기로신에게 술을 들었다. 왕이 술을 마시

고 고기와 만두, 탕이 올려진다. 같은 순서로 제2작(정읍만기 연주, 아박 공연), 제3작(소허자령 연주, 향발 공연), 제4작(천년만세 연주, 무고 공연)이 올려졌으며 푸른 휘장을 내려 잠시 쉬 후 다시 제5작이 진행되었다. 이 때 숙종은 술잔 가운데 금 글씨로 '사기로스(賜耆老所)'라고 새긴 은배(銀杯)로 제5작을 돌리게 하였다. 그리고 이 잔을 기로소에 하사하였다. 이 때 여민락(輿民樂)이 연주되고 광수(廣袖)가 공연되었으며 이어서 처용무 공연으로 기로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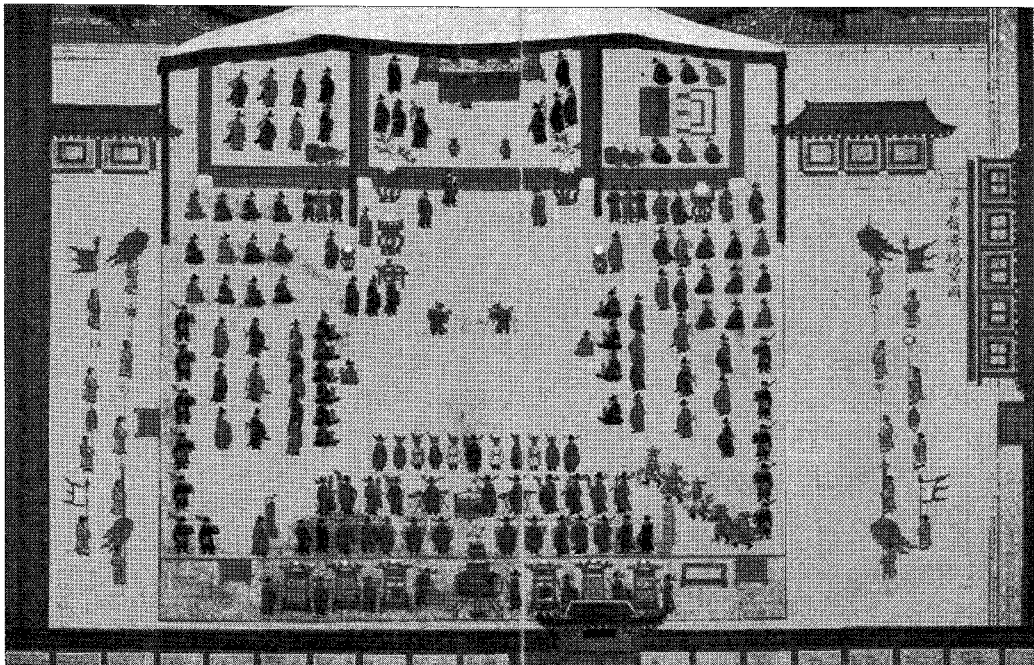
4월 18일에 열린 기로연은 물론, 숙종이 기로소에 입소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행사를 정리하여 남긴 화첩이 곧 『기사계첩』이다. 이 화첩은 행사를 치른 후 1년 뒤인 1720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때는 이미 숙종이 승하한 후였다. 계첩에는 임방(任瑩, 1640-1724)이 쓴 계첩서(契帖序)를 비롯하여, 경현당 석연(錫宴) 때 지은 숙종의 어제(御製), 기로소에 봉안된 어첩의 발문, 각 의식에 참여한 기로신의 명단,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 「숭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기사사연도(耆社

私宴圖)」 등 다섯 폭의 그림, 기로신(耆老臣)들의 좌목(座目), 그들의 반신상 초상화와 축시(祝詩), 계첩을 제작한 감조관(監造官)·서사관(書寫官)·화원 등의 실무자 명단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sup>10)</sup>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기사계첩』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호암미술관, 개인 소장 2건 등, 모두 6건<sup>11)</sup>이 전해지고 있다.

## 2. 「경현당석연도」의 내용

〈그림 1〉은 호암미술관 소장의 『기사계첩』에 묘사된 「경현당석연도」<sup>12)</sup>이다. 공개된 다른 화첩의 그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식의 표현이 정확하다고 판단되어 이 그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출처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그림 자료는 호암미술관 소장본임을 의미한다.

석연의 무대인 경현당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본래 경덕궁(慶德宮, 영조 30년에 慶熙宮으로 바뀜)의



〈그림 1〉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출처: 호암미술관 소장 『기사계첩(耆社契帖)』

편전(便殿)으로, 왕세자가 부왕(父王) 숙종의 명(命)을 받아 정사(政事)를 처리하던 정당(政堂)이었다.<sup>13)</sup> 당시 32세였던 왕세자는 이미 숙종 43년(1717) 8월 1일부터 대리청정<sup>14)</sup>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석연도」에 보이는 인물들은 행사에서의 역할과 복식 유형 상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인물들은 숙종과 왕세자이다. 그림에 숙종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사용원 제조(提調)가 천막 아래에 위치한 숙종에게 잔을 바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어좌의 왼쪽에 왕세자 역시 보이지 않지만 왕세자의 찬안상이 그려져 있다.

두 번째는 기로신과 기로연에 참여한 여러 재신(宰臣), 그리고 행사의 진행을 맡은 집사관과 내시(內侍)와 별운검(別雲劍) 등의 근시(近侍) 등이다. 무대 중앙의 좌우로 10인의 기로신이 앉았다. 자리의 순서는 기로소의 관례에 따라 품계의 고하를 따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15)</sup> 동쪽에 4인, 서쪽에 6인이 앉았는데 동쪽에는 정1품 관리들이 앉았다. 위에서부터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유(李滸, 75세<sup>16)</sup>),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 72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우항(金字杭, 71세),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황흥(黃興, 81세)이다. 당시 동편에 앉았어야 하는 최규서(崔奎瑞, 70세)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서쪽에는 종1품 이하 정2품 관리들이 자리하였는데 위에서부터 종1품 관리인 강현(姜覲, 70세)과 정2품 관리인 홍만조(洪萬朝, 75세), 이선부(李善溥, 74세), 한성판윤(漢城判尹) 정호(鄭濬, 72세), 우참찬(右參贊) 신임(申銓, 81세),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임방(任瑩, 80세)이다. 기로소는 정2품 이상 실직자들의 모임이며 원칙적으로 무관은 참가할 수 없었으므로 이 모임의 기로신들 역시 모두 문관 정2품 이상이였다.

세 번째는 사금(司禁)·무예별감(武藝別監)·의장군(儀仗軍)·사복시관[司僕寺官] 등의 시위 군사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음악과 정재를 담당하였던 장악원 소속의 인물들이다. 집박(執拍)과 악공(樂工), 가동(歌童), 협률랑(協律郎), 무동(舞童), 처용무동(處容舞童) 등이다. 대청 중앙에는 무동 2명

이 공연을 하고 있다. 이 무동에 대해 향발(響鉢)을 공연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sup>17)</sup>과 광수무(廣袖舞)를 공연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sup>18)</sup>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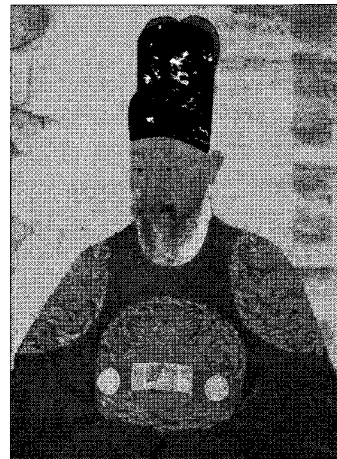
### Ⅲ. 「경현당석연도」의 등장인물 복식 분석

#### 1. 숙종과 왕세자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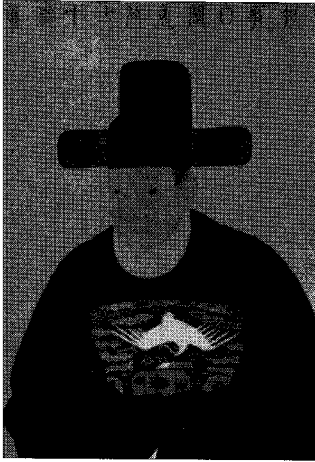
##### 1) 숙종의 익선관·곤룡포 차림

「경현당석연도」는 다른 궁중기록화에서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숙종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대전(大殿) 찬안상(饌案床)의 위치로 보아 차양으로 가려진 상단 중앙 위치가 숙종의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영조 27년(1751)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친림기로연(親臨耆老宴)에 전하가 익선관에 곤룡포를 갖추고 여(輿)를 타고 나간다<sup>19)</sup>고 되어 있는데 1719년 4월 18일자 실록 기사에도 숙종이 이 행사에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고 참석하였다<sup>20)</sup>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숙종의 모습은 영조 어진<그림 2><sup>21)</sup>의 모습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왕의 시사복(視事服)인 익선관·곤룡포 차림에는 옥대와 흑화 등이 포함되므로 숙종의 옷차림 역시 이와 같았을 것이다.



<그림 2> 영조 어진  
출처: 『人物畫』(1993)



〈그림 3〉 강현 초상화  
출처: 『人物畫』(1993)

익선관의 형태는 『기사계첩』에 실린 기로신들의 반신상 초상화(그림 3)<sup>22)</sup>에서 볼 수 있는 사모(紗帽)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영조가 쓰고 있는 익선관의 모정(帽頂)은 약간 둥근 형이지만 강현의 초상화(그림 3)에서 보이는 사모는 모정이 곧은 편이다. 따라서 숙종의 익선관도 강현의 사모와 같은 모체(帽體)를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의하면 익선관의 겉은 모라(毛羅)로 싸고 좌우 대각(大角)과 소각(小角)을 위로 향하도록 달았다.<sup>23)</sup> 그리고 기로연 때 숙종에게 꽃이 올려졌다<sup>24)</sup>는 4월 18일자 실록의 기록을 볼 때, 익선관에는 경축을 의미하는 수화(首花)를 꽂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곤룡포는 대홍사(大紅紗)를 사용하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대홍단을 사용하였으며 첩금오조원룡보(貼金五爪圓龍補)를 달았다<sup>25)</sup>고 하였으니 4월 중순에 치러진 이 행사에는 대홍단으로 만든 곤룡포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걸감 색상은 다홍색이고 반침옷 직령은 남색이었으며 직령의 깃에는 넓은 동정이 달려 단령 및 아래로 흰색 동정이 드러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어의(御衣)에는 운문(雲紋)을 사용해 왔으므로<sup>26)</sup> 기로연 때 입은 숙종의 곤룡포는 다홍색 운문단이었을 것이다. 곤룡포의 형태는 의원군(義原君) 이혁(李赫, 1661-1722)의 묘에서 출토된 단령<sup>27)</sup>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

로신들의 흑단령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곤룡포에는 가슴과 등, 양 어깨에 첩금 오조원룡보를 달았는데 ‘첩금’이란 조각판에 집착제를 바르고 직물에 도장처럼 찍어서 집착제를 도포한 후 금박을 올리고 눌러 붙이는 방법<sup>28)</sup>이다. 요즘은 흔히 ‘금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숙종과 왕세자의 곤룡포에는 금박 흉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영조의 어진에서 볼 수 있듯이, 옥대(玉帶)는 정(靛)을 대홍단(大紅緞)으로 싼 후, 그 위에 니금(泥金)으로 5줄[梁]을 가늘게 그리고 크고 작은 20개[枚]의 조옥(雕玉) 띠돈[帶錢]을 붙여서 만든 것이다.<sup>29)</sup> 그리고 신발은 백양모정(白羊毛精)을 갖춘 흑괘자피화(黑麋子皮靴)를 사용<sup>30)</sup>하였다.

## 2) 왕세자의 익선관·곤룡포 차림

『경현당석연도』에는 숙종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왕세자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지 않다. 단지 동편에 위치한 찬안상을 통해 왕세자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국조속오례의』에는 친림기로연에 왕세자 역시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는다<sup>31)</sup>고 하였다. 기로연이 행해진 1719년은 이미 32세가 된 경종이 왕세자로서 3년째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시기였다. 1688년에 출생한 경종은 3세에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8세에 입학례와 관례를 하였으므로<sup>32)</sup> 이미 8세 이후부터 익선관과 곤룡포를 착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왕세자의 익선관과 곤룡포는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 서연복(書筵服)으로 제시되어 있다. 부속품의 구성 역시 왕의 것과 동일하며 익선관도 왕의 익선관과 동일하다.<sup>33)</sup> 이 행사에서 왕세자에게도 꽃이 올려졌다는 4월 18일자 실록의 기록을 볼 때 왕세자 역시 익선관에 수화를 꽂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왕세자의 곤룡포는 왕의 것과 소재나 형태는 같지만 색상은 달랐다. 걸감은 흑사(黑紗)나 흑단(黑緞)을 계절에 맞추어 사용하였으며 반침옷은 광해군대 이후 다홍색을 사용하여 왔다.<sup>34)</sup> 따라서 4월 행사에는 흑운문단 걸감에 반침옷으로 다홍색 직령을 사용한 곤룡포에 4개의 첩금 사조원룡보(四爪圓龍補)를 달았다. 왕세자의 옥대는 정(靛)을 흑단(黑緞)으로 싸고 5줄의 가는 금선을 그렸으며 조각하지 않은

20개의 옥[不雕玉] 띠돈을 달았다. 그리고 흑화와 안에 신는 백양모정은 왕의 것과 동일하였다.

## 2. 기로신과 기로연 참여 증친, 재상 등의 복식

### 1) 기로신의 흑단령 차림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로신들의 좌복은 『기사계첩』제 10면에 11명으로 기록<sup>35)</sup>되어 있는데 당시 최규서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경현당석연도」에는 동편에 4명, 서편에 6명이 묘사되어 있다. <그림 4>는 당시 동편에 앉은 2번째 좌차에 해당되는 기로신 김창집을 묘사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한산당상관(閑散堂上官)은 공회(公會)에 사모를 쓴다<sup>36)</sup>고 규정되어 있다. 『국조속오례의』에도 기로신들은 상복(常服)을 착용한다고 되어 있다.<sup>37)</sup> 따라서 기로연에 참여하는 기로신들은 현직[時任職]에 있건, 한·산직(閑·散職)에 있건, 사모(紗帽)에 흑단령(黑團領), 품대(品帶), 흑화(黑靴)를 착용하는 상복 흑단령 차림이었다.



<그림 4> 기로신과 집사자(동쪽)

### (1) 사모

『기사계첩』에 실린 기로신 초상화<그림 3>에 보이는 사모 형태는 모정이 평평하며 사모 높이가 높고 날개 역시 각이 지고 넓적하다. 모아레 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모뿔이 묘사되어 있다. 무늬가 있는 당상관의 사모뿔은 『속대전』에 ‘문사각(紋紗角)’이라고 기록되어 있다.<sup>38)</sup> 그리고 기로신의 사모에도 경사스러운 자리를 상징하는 수화(首花)가 꽃혀져 있다.

### (2) 흑단령

『기사계첩』의 기로신 초상화에는 칠보가 사이사이에 어우러져 있는 현록색 운문단(雲紋緞) 흑단령이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녹색이 도는 흑단령은 17세기 후기부터 착용되었다.<sup>39)</sup> 이 그림에는 현록색과 청색 계통의 흑단령이 보이는데 기로신, 재신 중에서도 앞줄에 앉은 인물들이 현록색 흑단령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신분이 높은 인물을 표현할 때는 짙은 녹색 흑단령을 입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반면에 신분이 낮은 인물의 단령에는 다양한 농담(濃淡)의 청색이 채색되고 있어 흥미롭다.

흑단령 형태는 의원군의 것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의원군의 단령은 운보문단을 사용하였고 받침웃으로 연화문단의 직령을 사용하였는데 단령과 직령을 각각 만들어서 시침질로 안팎을 고정시켰다. 직령의 깃에는 넓은 동정이 달려 있다. 단령의 길이는 130.6cm이고 화장은 116.3cm이며 단령 깃 너비는 6.2cm로 넓은 편이다. 진동은 32.5cm이고 소매통 61.7cm의 넓은 두리소매이다. 뒤폭은 50cm인데 좌우의 앞뒤길 무는 등 뒤로 접혀져 뒷길 좌우에 매듭단추로 고정되었다. 앞길 쪽 무 상단 중간에 매듭단추가 달려 있으며 뒷길 무의 상단이 앞길 무에 시침질로 고정된 후 앞길 무의 단추가 등판에 붙은 암단추와 고정되도록 제작되었다.<sup>40)</sup> <그림 4> 중 집사관의 흑단령 무의 끝이 등에 밀착되지 않은 상태로 뾰족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무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 (3) 흉배

한편 임란 이후 흉배제도가 문란하여짐에 따라 숙종 18년(1692)에 조신(朝臣)들이 흉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옛 제도를 거듭 밝혀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sup>41)</sup>을 볼 수 있다. 동년 12월에는 6품 이상에게 흉배를 갖추도록 하였다.<sup>42)</sup> 따라서 1719년 기로연에 참여한 흑단령 차림의 인물 중 6품 이상은 모두 흉배를 부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숙종 말년인 18세기 초에는 이미 흰 빛을 띤 운학흉배(雲鶴胸背)와 백한흉배(白鵞胸背)의 이중구조가 이루어진 상태였다.<sup>43)</sup> 이러한 상황은 『속대전(續大



〈그림 5〉 ①종친과 참여 재신들 ②내시와 운검 차비 ③산·선 차비

典, 1746)』에 당상 3품 이상 운학(雲鶴), 당하3품 이하 백한(白鵬)<sup>44)</sup>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미 「경현당석연도」의 기로신 모습(그림 4)에는 흥배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기사계첩』의 기로신 초상화에는 〈그림 3〉처럼 10명 모두 쌍학을 묘사한 운학흥배가 그려져 있음을 볼 때 흥배를 달았음은 분명하다.

밀창군(密昌君) 이직(李稷, 1677-1746)의 묘에서 출토된 흥배는 쌍학으로 구성된 운학흥배였지만<sup>45)</sup> 의원군 묘에서 출토된 흥배는 금사로 단학을 수놓은 운학흥배였다. 숙종대에는 신분의 고하를 쌍학(雙鶴), 단학(單鶴)으로 구분하지는 않은 듯하다. 학의 마리수가 품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음은 정조

대의 기록<sup>46)</sup>에서 비로소 확인된다.

의원군의 금사(金絲) 운학흥배는 30.8×34cm의 크기로 큰 편이었으며 앞길 쪽 흥배는 깃 바로 아래에, 뒷길 쪽에는 고대 중앙선에서 11.3cm 내려온 지점에 달렸다. 그리고 뒷길의 흥배는 무에 의해 좌우의 일부가 덮여졌다. 흥배의 가장자리는 금사 2줄이 둘러져 징금수로 고정되어 있으며 학의 입에 불로초(不老草)가 없는데 이것이 숙종대 운학흥배의 특징이다.

#### (4) 품대와 흑화

이 모임에 모인 기로신들의 품계가 정2품 이상이었으므로 『경국대전』의 규정대로라면 서대(犀帶)와



〈그림 6〉 ①사금 ②무예별감 ③의장군 ④사복시관

삽금대(鍍金帶)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1976년 도록인 『기사계첩』에 10명의 기로신 초상화가 모두 제시되어 있는데 이우(李濡) 이하 강현(姜峴)까지는 모두 서대를 착용하였으며 홍만조, 이선부, 신임 등, 나머지 기로신들은 삽금대를 띠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흑화는 흑록피(黑鹿皮)에 남삼승(藍三升) 안감을 사용하였는데<sup>47)</sup> 기로신들의 흑화 역시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 외에 남색 직령이 반허진 흑단령 안에는 바지·저고리 외에 중치막과 창의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기로연 참여인물들의 흑단령 차림

기로연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종친이나 의빈<그림 5①>, 행사 진행을 돕는 집사관들<그림 4>, 내시나 운검 등의 근시(近侍)<그림 5②>, 산·선(繖·扇)차비들<그림 5③>은 흑단령을 입었다.

이들은 같은 흑단령을 착용하였지만 품대는 품계에 따라 1품 서대, 정2품 삽금대, 종2품 학정대나 소금대, 정3품은 삼은대, 종3품과 4품은 소은대, 5품 이하는 흑각대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림 5>에서는 흥배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6품까지 흥배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당상관은 운학흥배를, 당하3품에서 6품까지는 백한흥배<sup>48)</sup>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3. 시위군사의 복식

### 1) 사금(司禁)의 용복 차림

사금(司禁)<그림 6①>은 좌우 4명씩 모두 8명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은 용복 차림을 하고 있다. 입자(笠子)와 철릭, 사대(絲帶), 수화자(水靴子) 등이 용복의 기본 구성이다.

『속대전(續大典)』에 당상관은 자립(紫笠)에 패영(貝纒) 장식을 하고 남색 철릭을 입으며 당하관은 흑립에 정영(晶纒) 장식을 하고 청현색 철릭을 입는다<sup>49)</sup>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현당석연도」에 묘사된 사금은 모두 흑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철릭의 색상도 남색과 청현색이 보이기는 하지

만 당상·당하의 구분은 어렵다. 8명 모두 동개(筒筒)를 찾는데 그 중 여섯 명은 왼편에 시복(矢箠)을, 오른편에 궁대(弓袋)를 패용하였다. 수화자(水靴子)를 신고 허리에는 실띠[絲帶]인 광대(廣帶)를 들렀다. 당상관은 진홍색의 광대를, 당하관은 남색 광대를 사용하였다.<sup>50)</sup> 의원군의 묘에서도 광대가 출토되었는데 너비 2.8cm에 길이 199cm이며 양 끝에 9cm 길이의 술이 달렸다.<sup>51)</sup>

당시의 철릭 형태는 의원군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52)</sup> 운보문단으로 만든 홀 철릭으로 치마 부분의 좌우 양 옆이 트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좌우 옆트임은 밀창군의 철릭에서도 확인된다.<sup>53)</sup> 의원군 철릭의 우측 트임은 3cm가 겹쳐졌고 좌측 트임은 6.5cm가 겹쳐졌다<sup>54)</sup>고 하는데 밀창군의 철릭이 뒤쪽 치마 부분이 앞쪽 치마 부분을 덮는 형식으로 제작된 것을 볼 때, 의원군의 것도 뒷자락이 앞자락 위로 겹쳐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트임은 용복에 패용하는 기물(器物)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철릭의 깃은 12cm 너비의 넓은 칼깃이고 옷의 총 길이는 117cm(치마 길이 74cm)인데 화장 역시 117cm이다. 뒤품은 67cm이고 소매통 58cm의 넓은 두리소매가 달렸다. 고름(6.5×63.5cm) 아래쪽으로 치마와 상의 연결부위에는 매듭단추가 달렸는데 겹섶 쪽에 솟단추, 우측 겨드랑이 쪽에 압단추가 달려있다. 치마 부분의 주름나비는 2cm로, 허리선부터 치마 밑단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눌러 잡았으며 겨드랑이에는 띠를 떨 수 있는 고리와 끈이 달려 있다.<sup>55)</sup>

### 2) 무예별감의 자건(紫巾)·녹색 직령 차림

조총(皂銃)을 들고 있는 인물들<그림 6②>은 무예별감이다. 짙은 색 건(巾)에 녹색 옷을 입고 남색 띠를 허리에 둘렀으며 흑화를 신고 있다. 『속대전』에 별감은 평상시에는 홍직령을 입고 대소조의(大小朝議)에는 자건(紫巾)에 녹색을 입는다<sup>56)</sup>고 하였으니 녹색 직령으로 추정된다.

무예별감의 자건은 높이가 낮고 모정에 여러 개의 각이 있는 모자로 보이는데 ‘평정건’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창덕궁 소장 유물과 유사하다. 이 유물은 무명



을 겹으로 하여 만들어, 안에는 심을 넣어 뽕뽕하게 만들었다. 모정(帽頂)은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아 뒤로 약간의 경사가 졌으며 모정이 가장자리를 따라 각이 졌다.<sup>57)</sup>

그리고 허리에는 남색 띠를 매고 있다. 도아(條兒)를 띠는다는 규정은 『경국대전』에서 확인되지만 조선 후기의 「한양가(漢陽歌)」에서는 남색 광다회를 두른 별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무예별감은 남색 광다회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별감의 신발에 대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대부분의 반차도에는 <그림 6②>와는 달리, 행전에 혜를 신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1681년 『숙종인현후가례도감의궤(肅宗仁顯后嘉禮都監儀軌)』 반차도(班次圖)의 자건에 녹의를 입은 별감은 옷이 길어서 신발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1759년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반차도<sup>58)</sup>에서는 행전을 치고 운혜를 신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총을 걸치지 않은 쪽 허리에는 알 수 없는 누런 물체<그림 6②>가 묘사되어 있다.

### 3) 의장군의 피립(皮笠)과 홍목의(紅木衣) 차림

기로연에 참여한 의장군<그림 6③>은 모정이 둥근 초립형 붉은 입자(笠子)에 옆트임이 있는 홍색 옷을 입고 허리에는 남색 띠를 묶었으며 흰색 행전에 흑색 신발을 신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에 앞선 1694년 『책례도감의궤(冊禮都監儀軌)』에는 의장군의 복식으로 피립(皮笠)과 청목두건(靑木頭巾)과 자목두건(紫木頭巾), 홍목의(紅木衣)·청목의(靑木衣)·자목의(紫木衣)와 홍목대(紅木帶)가 기록되어 있

다.<sup>59)</sup>

피립은 소가죽의 붉은 색 입자인데 홍색 끈을 달았다.<sup>60)</sup> 홍목의(紅木衣)는 소매가 그리 넓지 않고 옆트임이 있는 홍색 면포 옷<sup>61)</sup>이다. 허리띠는 숙종대의 의궤에서도 홍목대 또는 홍대(紅帶)<sup>62)</sup>이고 정조대의 의궤<sup>63)</sup>에도 홍목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석연도」에는 남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의장군의 신발이나 행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1627년 소현세자 가례시 빈의 장봉지군(嬪儀仗奉持軍)이 피립과 홍목의, 청목의에 행전과 운혜를 사용한 것<sup>64)</sup>을 볼 때 기로연 의장군 역시 행전을 두르고 운혜를 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사복시관[司僕寺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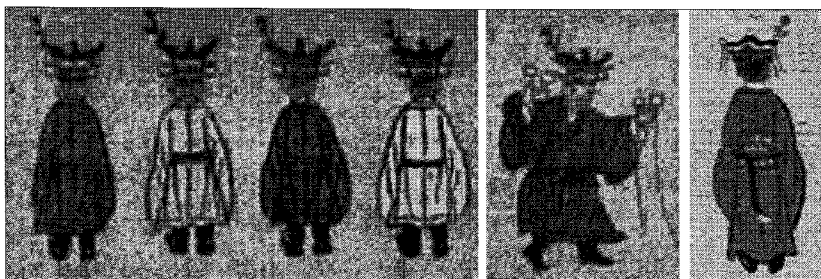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노부(鹵簿) 조를 보면 조선 전기부터 사복시관은 상복, 즉 흑단령을 입고 패검(佩劍)을 하였다.<sup>65)</sup> 「경현당석연도」에서도 시위군관으로서 있는 <그림 6④>의 사복시관들 역시 사모에 흑단령을 입고 검을 패용했음을 볼 수 있다.

## 4. 정재 관련 인물들의 복식

### 1) 무동 복식

기해년(1719)의 『진연의궤』에는 무동이 화관(花冠)에 홍배 달린 관복(冠服)과 치마[裳], 중단(中單), 흑화자(黑靴子), 두석혁대(豆錫革帶)를 착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현당 석연에 참여한 무동의 복식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화관은 다양한 색상의 안료와 구슬로 장식되었다.



<그림 7> ①무동 ②무동(향발) ③무동(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본)

그리고 수화도 꽃았다. 갑자년(1744) 『진연의궤』에는 화관을 새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대홍주(大紅珠)와 오색주(五色珠), 자적주(紫的紬) 끈, 도투락[道吐落], 후결홍사(後結紅系) 등이 사용되었음<sup>66)</sup>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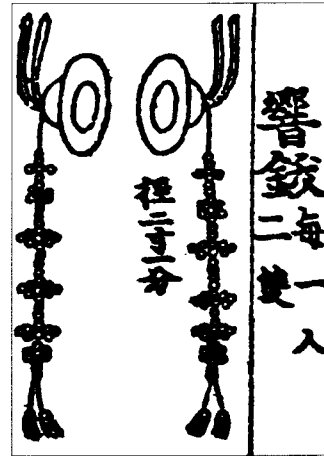
9월 진연에는 무동의 관복으로 단령형의 흑소광적(黑小廣積) 관복과 유록노주주(柳綠璠洲紬) 관복, 초록노주주(草綠璠洲紬) 관복, 남노주주(藍璠洲紬) 관복, 다홍노주주(多紅璠洲紬) 관복이 마련되었는데 <그림 7①·②>의 무동 관복은 처용무동의 관복처럼 오방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실제로 사용된 무동복의 색상과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동의 관복이 단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7②>의 무동은 끈은 깃의 홍색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관복색과 마찬가지로 옷의 형태도 잘못 묘사되어 있다.

홍배는 당주홍(唐朱紅)이나 석자황(石紫黃) 등의 안료<sup>67)</sup>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는데 무동의 모습에서 홍배는 보이지 않는다.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기사계첩』의 「기사사연도」 <그림 7③><sup>68)</sup>에 보이는 무동들의 모습에만 홍배가 묘사되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주 지적되어 온 사실이지만 이처럼 기록과의 비교 없이 도상에만 의존하여 복식을 고찰한다는 것은 위험이 따름을 알 수 있다.

무동의 치마는 전3폭 후4폭 형으로, 남색 노주주(璠洲紬)로 만든 것 4건과 다홍 노주주로 만든 것 12건이 제작되었다. 그림 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관복 안에 입었기 때문이다. 남노주주 치마[藍璠洲紬裳]는 다홍색 관복에 사용되었으며 다홍색 노주주 치마[多紅藍璠洲紬裳]는 다홍색 관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되었다. 무자년(1828) 『진작의궤(進爵儀軌)』의 '홍질남선상(紅質藍縵裳)'과 '남질홍선상(藍質紅縵裳)'<sup>69)</sup>라는 기록을 볼 때 치마에는 흑선을 들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단 역시 백저포로 만들었다는 기록만 보이는데 무자년(1828) 『진작의궤(進爵儀軌)』의 '백질흑선중단의(白質黑縵中單衣)'<sup>70)</sup>라는 기록을 참고해 볼 때 중단에도 흑선을 들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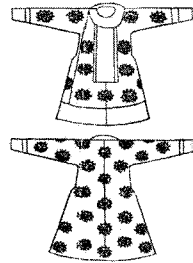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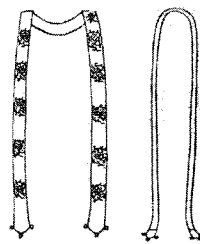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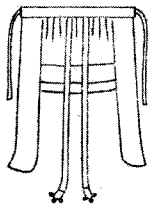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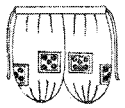
한편 관복에 두르는 두석혁대는 동일 의궤 내에



<그림 8> 響發  
출처: 『樂學軌範』, 권8

‘청혁대(靑革帶)’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보수하는데 들어간 재료 중에 삼록(三綠)이라는 안료가 보인다.<sup>71)</sup> 삼록색은 요즈음도 단청에 사용하는 안료로, 양록에 백분을 섞어서 만드는 색이다.<sup>72)</sup> 흰 빛이 도는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상에는 홍색과 청색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기록과 그림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록색 허리띠를 ‘청혁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녹색이 청색 범주에 속했기 때문이다.<sup>73)</sup> 또한 두석혁대는 야자대(也字帶)이므로 혁대 끝이 늘어지도록 묘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어지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연세대학교 소장본 <그림 7③>에는 늘어지는 혁대 부분이 검게 묘사되어 있고 호암미술관 소장본에는 <그림 7②>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묶은 포대(布帶)처럼 묘사되어 있다. 삼록색의 야자대형 허리띠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무대에서 공연 중인 홍색 관복의 무동 <그림 7②>은 양 손에 작고 동그란 악기를 2개씩 들고 있는데 <그림 8>과 같은 향발(響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현당석연도」는 제3작을 올린 후 ‘향발’을 공연하고 있는 현장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발은 한 사람이 두 쌍을 드는데 좌우 손의 엄지와 장지에 댄다.<sup>74)</sup> 놋쇠로 만들며 동발(銅鉢)과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작으며 뒤쪽에 녹비[鹿皮] 끈을 달고 오색 매듭[五色結子]을 드리웠다.<sup>75)</sup>

紗帽	衣	天衣·吉慶	裳
			
鞋	汗衫	帶	裙
			

〈그림 9〉『樂學軌範』處容冠服圖(출처: 오혜경, 2006:21)

그 외에 9월 진연에서는 무동들이 머리 빗고 화장하는 재료로 분(粉) 2돈씩 2냥과 연자 3사발도 준비되었으며 무동용 망건에 자적사(紫的絲) 당줄과 납관자(鐵貫子)가 사용되었으니<sup>76)</sup> 4월의 기로연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2) 처용무동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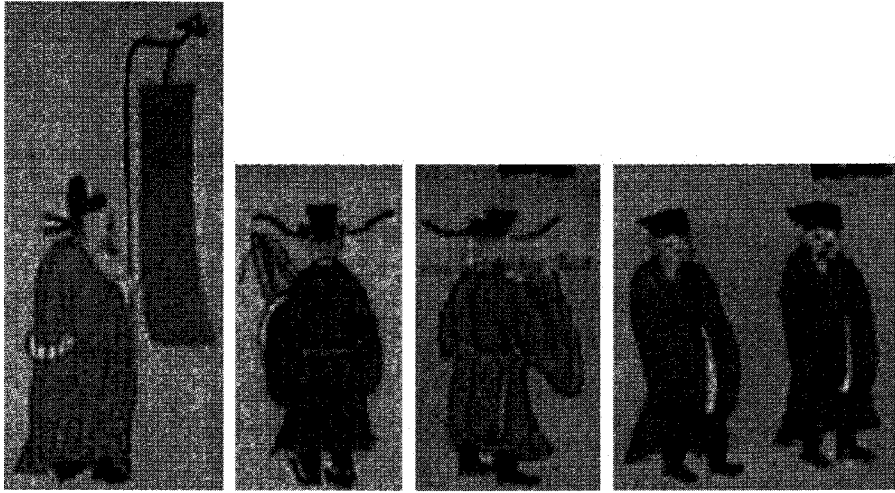
처용무동복은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도상을 정리하면 〈그림 9〉<sup>77)</sup>와 같다. 가면이 연결된 사모에 오방색으로 만든 의(衣), 한삼(汗衫), 군(裙), 상(裳), 천의(天衣), 길경(吉慶), 대(帶),

혜(鞋)로 구성되어 있다.

『경현당석연도』의 처용무동〈그림 10〉은 사모 쓴 가면에 말군(襪裙)과 한삼이 드러나는 긴 소매의 오방색 단령을 입고 어깨에는 천의를 들렀으며 흑화를 신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기사년(1719) 『진연의궤』에는 처용복색으로 한삼을 갖춘 청단의(靑段衣)·홍단의(紅段衣)·백단의(白段衣)·흑단의(黑段衣)·황단의(黃段衣)에 홍·남·흑색 말군(襪裙), 황초상(黃綯裳), 가면(假面), 두석이환(豆錫耳環), 금대(金帶), 수화(首花), 백마피초혜(白馬皮草鞋)로 기록되어 있다.<sup>78)</sup> 석연에 참여한 처용무동은 이와 동일한



〈그림 10〉 ①처용무동(『경현당석연도』) ②처용무동(『기사사연도』)



〈그림 11〉 ①협률랑 ②집박 ③악공 ④가동

구성의 옷차림을 하였을 것이다.

『악학궤범』의 의(衣)는 전단후장(前短後長) 형태이고 깃은 둥글고 넓으며 가슴에 붙인 조각[胸]은 네모지고 길다. 그리고 앞길과 뒤길, 양 소매에 만화(蔓花)를 그렸다. 남색을 사용한 청의에는 깃과 가슴에 홍금선(紅金線)을 사용하고 가슴의 양변에는 녹단(綠段)의 선을 뒀다. 소매 끝에는 흑단, 황초의 옷감을 잇대고 안감은 홍초를 사용하였다.<sup>79)</sup>

『악학궤범』의 옷에는 앞길에만 직사각형 흉(胸)을 달았으나 『석연도』의 처용무동은 단령의 가슴과 등에 둥근 흉배를 달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떠는 『악학궤범』에 ‘대(帶)’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홍정(紅鞞)을 사용하며 띠[鉤]에 여지를 새겨 금을 붙여 바른다고 하였는데 기해년(1719) 『진연의궤』의 ‘금대’ 역시 반주홍(礮朱紅)과 석자황(石紫黃), 장피(獐皮), 두석(豆錫) 등의 재료가 사용되었으니 『악학궤범』과 유사한 홍정 야자대임을 알 수 있다. 『석연도』〈그림 10①·②〉에서 볼 수 있듯이, 허리띠는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야자대 형태는 아니다.

신발은 『악학궤범』에 혜(鞋)로 기록되어 있고 『진연의궤(1719)』에는 ‘백마피초혜’로 기록되어 있으나 『석연도』에는 흑화로 표현되어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기해년 『진연의궤』에는 『악학궤범』의 녹색 천의와 양 끝에 녹색 옷감을 댄 홍색 길경이 보이질

않음에도 불구하고 『석연도』에는 남색과 녹색, 홍색 등의 천의가 그려져 있다. 이처럼 『석연도』의 단령 흉배 부분이나 허리띠의 형태, 신발, 천의와 길경 등에서 『악학궤범』이나 기해년 『진연의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

### 3) 협률랑 복식

〈그림 11①〉은 휘(麾)를 들고 행사의 절차에 따라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협률랑(協律郎)이다. 협률랑은 장악원(掌樂院)의 관리인 장악정(掌樂正, 정3품 당하)이 하였는데<sup>80)</sup> 사모에 흑단령을 입고 있다.

『악학궤범』에는 협률랑이 시복(時服)을 입는다<sup>81)</sup>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의 시복(時服)은 흑단령이었으므로 협률랑이 흑단령을 입는 조선 전기의 제도가 그대로 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모와 백한흉배를 단 흑단령에 삼은대를 띠고 흑화를 신었다.

### 4) 집박(執拍) 복식

〈그림 11②〉에 보이는 초록색 옷의 인물이 음악을 관장하는 집박이다. 집박은 모라복두(冒羅幞頭)와 녹사의(綠紗衣), 오정대(烏靑帶), 흑피화(黑皮靴)를 착용하였다. 특히 모라복두에는 모단영자(冒段纓子)가 달렸으며 후결사(後結絲)와 뿔[角]이 있었다.<sup>82)</sup>

갑자년(1744) 『진연의궤(進宴儀軌)』에 보이는 집

박의 녹색의(綠納衣) 역시 옷감만 다를 뿐, 녹사의와 같은 것인데 녹색 25자 5치에 단령 깃에 사용하는 면사(綿絲) 2돈, 초록진사(草綠眞絲) 2돈이 소요되었다. 홑옷으로 제작되었음도 알 수 있고 둥근 깃의 접히는 골 부분에 면사를 넣어 깃 가장자리를 도톰하게 만들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오정대는 검은 색의 야자대(也字帶) 형태인데 생우피(生牛皮)와 두석(豆錫), 석자황(石紫黃), 아교, 대동사(大銅絲), 중동사(中銅絲), 노루가죽[獐皮], 명유(明油), 탄(炭), 대전(大錢)과 소전(小錢) 등으로 제작하였다.<sup>83)</sup> <그림 11②>에는 오정대가 검은 색이 아닌 청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띠의 늘어지는 부분도 생략되어 있다.

### 5) 악공(樂工) 복색

<그림 11③>의 전상공인(殿上工人)인 악공(樂工)

들은 복두에 붉은 색 옷을 입고 검은 띠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이는 화화복두(花畫幞頭)에 홍주의(紅紉衣)를 입고 오정대(烏靛帶)를 두르고 흑화자를 신은 모습이다.<sup>84)</sup>

화화복두의 보수에 어교(魚膠), 삼록, 명유(明油), 중동사, 아교(阿膠), 진분(眞粉), 저포, 생포, 황단(黃丹), 영자감[纓子次], 송언, 후결 홍향사(紅鄉絲) 등이 사용되었다.<sup>85)</sup>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에는 화화복두 하단과 상단에 초록색 잎이 달린 붉은 색 꽃을 그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서<sup>86)</sup> 화화복두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홍주의는 단령형의 옷으로 『종묘의궤(宗廟儀軌, 1706)』<sup>87)</sup>에 그 도상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11③>의 뒷모습에서 뾰족하게 묘사된 단령의 무(武) 부분도 확인된다. 한편 오정대는 흑색 야자대임에도 불구하고 「석연도」에는 청색 야자대로 묘사되어 있다.

<표 1> 1719년 경현당(景賢堂) 석연(錫宴) 참여자의 복식 유형별 구성

	참여자		복식 구성				
			관모	의복	허리띠	신발	기타
1	숙종(肅宗)	익선관	다홍운문단 곤룡포(보)	옥대[紅靛雕玉帶]	흑피화(黑皮靴)	침금오조롱보	
	왕세자(王世子)	익선관	흑운문단 곤룡포(보)	옥대 [黑靛不雕玉帶]	흑피화	침금사조롱보	
2	기로신(耆老臣)	사모	흑단령 (운학홍배)	서대(犀帶) 삼금대(鈹金帶)	흑피화	운학홍배(쌍학)	
	종친·의빈·근시·차비 등	사모	흑단령 (6품이상 홍배)	품대(品帶)	흑피화	차비의 산선(緞扇)	
3	사금(司禁)	당상관	자립+패영 (貝纓)	철릭(남색)	광대(진홍)	수화자(水靴子)	시복(矢箆)·궁대(弓袋)
		당하관	흑립+정영 (晶纓)	철릭(청현색)	광대(남색)	수화자	시복·궁대
	무예별감	자건	녹직령	광대(남색)	운혜(雲鞋)·행진	조총	
	의장군	피립	홍의	홍목대(紅木帶)	운혜·행진	의물	
	사복시관[司僕寺官]	사모	흑단령 (6품이상 홍배)	품대	흑피화	패검	
4	무동	화관	관복(홍배)·상·중단	두석혁대 (삼록색 야자대)	흑화자	관복 색상 (흑·유록·초록·남·다홍)	
	처용무동	가면·수화	의·말근·상	금대 (緋朱紅 야자대)	백마피초혜	의(衣) 색상(오방색)	
	협률랑	사모	흑단령 (백한홍배)	소은대(素銀帶)	흑피화	휘(麾)	
	집박	모라복두	녹사의(綠紗衣)	오정대(烏靛帶)	흑피화	의(단령형)·박(拍)	
	악공	화화복두	홍주의(紅紉衣)	오정대	흑피화	의(단령형)·악기	
	가동	자적두건	녹주의(綠紉衣)	자적대(紫的帶)	흑화	의(단령형)	

### 6) 가동(歌童) 복색

〈그림 11④〉의 가동은 전상(殿上) 맨 아래 줄에 있는 악공들 좌우에 2명씩 서 있다. 그들은 자적두건(紫的頭巾)에 단령형 녹색의(綠紉衣)를 입고 자적대(紫的帶)를 둘렀다.<sup>88)</sup> 그 모습이 무예별감과 유사하지만 무예별감은 녹색 직령을 입는 것에 반하여 가동은 녹색 단령을 입었으며 소매가 넓은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소매에 가려져서 허리띠는 보이지 않지만 자적대를 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발은 흑화를 신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기사계첩』 「경현당석연도」와 관련기록을 통해 석연에 참여한 인물들의 복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 IV. 맺음말

숙종이 기해년(숙종 45년, 1719) 2월에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한 후, 4월 18일에 이르러 기로신(耆老臣)들을 위해 기로연(耆老宴)을 개최하였다. 『기사계첩(耆社契帖)』의 제7면에 실린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를 중심으로 기로연에 참여한 인물들의 복식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로연에 참석한 숙종은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었다. 익선관은 『기사계첩』에 실린 기로신들의 반신상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사모(紗帽)처럼 모정이 평평하고 뽕은 위로 향하였으며 경사스러운 자리의 상징인 수화(首花)를 꽂았다. 곤룡포는 남색 직령을 낸 대홍운문단(大紅雲紋緞) 곤룡포인데 첩금오조원룡보(貼金五爪圓龍補)를 달았다. 그 형태는 의원군 이혁(李赫, 1661-1722)의 묘에서 출토된 단령과 유사하다. 곤룡포 안에는 남색 직령과 창의, 중지막 등을 입었다. 옥대(玉帶)는 금선 5줄을 그린 대홍단(大紅緞) 정(靛)에 조각한 옥 띠돈[雕玉帶錢] 20개를 붙인 것이었으며 신발은 백양모정(白羊毛精)을 갖춘 흑피화(黑皮靴)를 사용하였다.

왕세자 역시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었다. 익선관은 왕의 익선관과 동일하였으며 역시 수화를 꽂았다. 대홍색 직령을 낸 왕세자의 곤룡포는 왕의 것과 소재나 형태는 같았지만 흑운문단(黑雲紋緞)을 사용하였

으며 첩금사조원룡보(貼金四爪圓龍補)를 단 것이었다. 옥대는 흑정(黑靛)에 조각하지 않은 옥[不雕玉] 띠돈을 달았고 흑피화와 백양모정은 숙종의 것과 동일하였다.

둘째, 기로신들은 흑단령 차림을 하였다. 사모는 모정이 평평하고 높이가 높은 편이었으며 사모뿔에 무늬가 있는 ‘문사각(紋紗角)’을 사용하고 수화(首花)를 꽂았다. 흑단령은 현록색 운문단(雲紋緞)을 사용하였으며 그 형태는 의원군의 것처럼 단령과 직령을 각각 만들어서 시침질로 안팎을 고정시킨 형이다. 그리고 무는 등 뒤로 돌아가 매듭단추로 고정되었다. 흉배는 학의 입에 불로초가 없는 쌍학문(雙鶴紋)의 운학흉배(雲鶴胸背)를 달았다. 품대는 서대(犀帶)와 삼금대(鎩金帶)를 품계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남색 직령을 낸 흑단령 안에는 바지·저고리 외에 중지막과 창의를 받침옷으로 입었다. 그 외에 기로연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종친이나 의빈, 그리고 참연 제신과 행사 진행을 돕는 인물들과 어보(御寶)와 보검(寶劍), 운검(雲劍), 양산(陽纒) 등의 산선차비(緞扇差備)도 사모에 흑단령을 착용하였으며 각자의 품계에 따른 품대(品帶)와 흉배를 사용하였다.

셋째, 시위군사 중 사금(司禁)은 용복 차림에 동개[筒筒]를 찾으며 조총(皂銃)을 들고 있는 무예별감(武藝別監)은 자건(紫巾)에 녹색 직령을 입고 허리에는 남색 광다회를 둘렀다. 의장군(儀仗軍)은 피랍(皮笠)에 홍목의(紅木衣), 홍목대(紅木帶), 행건(行纏)과 운혜(雲鞋)를 착용하였으며 사복시관(司僕寺官)은 사모와 흑단령, 품대를 착용하고 패검(佩劍)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재 관련 인물들 중 무동은 화관(花冠)에 흉배 달린 관복(冠服)과 치마[裳], 중단(中單), 흑화자(黑靴子), 두석혁대(豆錫革帶)를 착용하였다. 「경현당석연도」에는 처용관복색과 같은 오방색으로 표현되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흑색, 유록색, 초록색, 남색, 다홍색 관복 색상이 착용되었다. 또한 관복에 흉배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연도」에는 흉배가 생략되었다. 치마는 관복 안에 착용하였으므로 그림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석혁대는 삼록색 야자대임에도 불구하고 「석연도」에서는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묘사되어 있었다.

처용무동은 한삼을 갖춘 청단의(靑段衣)·홍단의(紅段衣)·백단의(白段衣)·흑단의(黑段衣)·황단의(黃段衣)에 홍·남·흑색의 말근, 황초상(黃綃裳), 가면(假面), 두석이환(豆錫耳環), 금대(金帶), 수화(首花), 백마피초혜(白馬皮草鞋) 등을 갖추었는데 특히 홍배 모양은 원형으로 묘사되었으며 초혜(草鞋)로 기록되어 있는 신발은 흑화로 묘사되었다. 천의(天衣)는 기록에 없으나 「석연도」에는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등, 관련 기록과 다른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휘(麾)를 들고 행사의 절차에 따라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협률랑(協律郎樂師)은 사모와 백한홍배를 부착한 흑단령에 소은대(素銀帶)를 띠고 흑화를 신었다. 집박은 모라복두(冒羅幘頭)와 녹사의(綠紗衣), 오정대(烏靛帶), 흑피화(黑皮靴)를 갖추었으며 전상공인(殿上工人)인 악공(樂工)들은 화화복두에 홍주의를 입고 오정대(烏靛帶)를 들렀다. 그리고 가동(歌童)은 자적두건(紫的頭巾)에 단령형 녹주의(綠袖衣)를 입고 자적대(紫的帶)를 사용하였다.

1719년 4월 18일의 기로연을 묘사한 「경현당석연도」에 보이는 인물들의 복식 유형은 관련 기록과 일치하였지만 세부적인 구성 부분에는 오류가 적지 않았다. 특히 복식 구성이 복잡한 처용무동을 포함한 무동 복식에 오류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숙종대 기로연 행사를 재현을 위한 등장인물들의 복식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또한 도록의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오류나 상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심승구 (2007). 조선시대 기로연(耆老宴)의 실행과 정치·사회적 의미. 조선시대 기로연 학술세미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p. 1-2.  
2) ①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1976). 特別展 耆社契帖. ② 金元龍 외 (1993). 韓國의 美 20: 人物畫. 中央日報社. 圖 26-27. ③湖巖美術館 (1996). 湖巖美術館名品圖錄

II, pp. 74-75. ④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9).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명품, pp. 114-117. 이후 「경현당석연도」는 「석연도」라고도 표기하고자 한다.  
3) 肅宗實錄 卷63 45年 1月 癸未 이후 다수.  
4) 宋芳松·朴貞蓮 외 (2001). 國譯 肅宗朝 己亥進宴儀軌. 민속원.  
5) 柳喜卿 (1980) 「耆社契帖」에 나타난 服飾에 關하여,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pp. 99-128.  
6) 肅宗實錄. 卷63 45年 1月 癸未.  
7) 肅宗實錄. 卷63 45年 2月 甲寅.  
8) 肅宗實錄. 卷63 45年 4月 庚申.  
9) 김문식 (2007). 1719년 기로연 행사와 의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p. 23-25.  
10) 박정혜 (2000).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연구. 一志社, p. 176.  
11) 위의 책, p. 180.  
12) 호암미술관 (1996). 앞의 책, p. 74.  
13) 사진실 (2000).耆老宴의 무대와 객석. 문헌과 해석 10, p. 113.  
14) 김문식 (2007). 왕세자 경종의 대리청정. 문헌과 해석 38, p. 44.  
15) 肅宗實錄. 卷63 45年 3月 辛丑.  
16)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1976). 앞의 책, pp. 58-59. 「耆社契帖」기로신의 진영이 그려져 있는 11a-16a면에 연영이 기록되어 있다.  
17) ①박정혜 (2000). 앞의 책, p. 187. ②오혜경 (2006). 조선시대 舞臺服飾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5.  
18) 사진실 (2000). 앞의 책, p. 118.  
19) 國朝續五禮儀. 卷2 嘉禮 親臨耆老宴儀 12.  
20) 肅宗實錄. 卷63 45年 4月 庚申.  
21) 金元龍 외 (1993). 앞의 책, p. 91.  
22) 위의 책, p. 118.  
23)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卷2 嘉禮 殿下視事服圖說, 1b.  
24) 肅宗實錄. 卷63 45年 4月 庚申.  
25)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卷2 嘉禮 殿下視事服圖說, 2a.  
26) 肅宗實錄. 卷24 18年 4月 丁亥.  
27) 김미자 (2001). 의원군 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경기도박물관 편,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p. 212-214.  
28) 장현주·고순희 (2006). 조선시대 복식에 사용된 금장식 기법의 유형과 특성. 服飾, 56(4), p. 84.  
29) 喪禮補編. 圖說, p. 3.  
30) 尙方定例. 天, 大殿 節日進上 正朝, 3.  
31) 國朝續五禮儀. 卷2 嘉禮 親臨耆老宴儀, 11.  
32) 景宗實錄. 附錄 景宗大王行狀.  
33) 國朝續五禮儀補序例. 권2 嘉禮 王世子書筵服制度, 5-6.  
34) 光海君日記. 卷146 11年 11月 乙巳.  
35)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1976). 앞의 책, p. 30.  
36) 經國大典. 卷3 儀章, 9.  
37) 國朝續五禮儀. 卷2 嘉禮 親臨耆老宴儀 11.  
38) 續大典. 卷3 禮典 儀章 17.  
39) 이은주·조효숙·하명은 (2005).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p. 126.

- 40) 김미자 (2001). 앞의 책, pp. 212-214.
- 41) 燃藜室記述. 別集 卷13 政教典故.
- 42) 肅宗實錄. 卷24 18年 12月 癸未.
- 43) 하명은 · 이은주 (2007). 날짐승흉매 감정(鑑定)을 위한 기준 설정. 韓服文化, 10(3), p. 165.
- 44) 續大典. 卷3 禮典 儀章 17.
- 45) 박성실 (2004). 全州李氏 密昌君 稷(1677~1746)墓出土服飾 特別展. 韓國服飾, 22,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p. 123.
- 46) 小田幾五郎 (2005). 象胥紀聞. 栗田英二(譯註), 이회, p. 151.
- 47) 尙方定例. 卷2 別例 上 60.
- 48) ①국립제주박물관 (2005). 조선중기 역사의 진실. 이익태 牧使가 남긴 기록, p. 12. ②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2000). 韓國의 刺繡 어제와 오늘, p. 15. ③경기도박물관 (1997). 경기국보, p. 29.
- 49) 續大典. 卷之3 17b.
- 50) 丁若鏞 (1810). 與猶堂全書. 第1集 文 卷9, p. 30a.
- 51) 김미자 (2001). 앞의 책, p. 220.
- 52) 위의 책, pp. 216-217.
- 53) 박성실 (2004). 앞의 책, pp. 134-135.
- 54) 김미자 (2001). 앞의 책, p. 216.
- 55) 위의 책, p. 217.
- 56) 續大典. 卷3 17b.
- 57) 文化公報部 · 文化財管理局 (1981). 朝鮮時代. 宮中服飾, p. 17.
- 58)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下(1759), p. 235.
- 59) 冊禮都監儀軌 (1694), p. 95.
- 60) 肅宗仁顯后嘉禮都監儀軌 (1681), p. 328.
- 61) 이은주 · 박가영 (2007). 英祖代 大射禮儀 참여자의 복식 유형 고증. 服飾, 57(2), p. 109. 17-18세기 묘에서 출토되고 있는 중치막 유물의 소매 너비가 다양한 것으로 볼 때 의장군의 옷을 좁은 소매의 중치막으로 볼 수도 있다.
- 62) 王世子嘉禮都監儀軌 (1671), p. 175.
- 63) 正祖國葬都監儀軌. 二房儀軌 儀仗軍.
- 64)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70a.
- 65) 國朝五禮儀. 卷2 嘉禮 鹵簿
- 66) 宋芳松 · 朴貞蓮 외 (2001). 앞의 책, p. 128, p. 227.
- 67) 위의 책, p. 203.
- 68) 박정혜 (2000). 앞의 책, p. 209.
- 69) 戊子進爵儀軌. 卷2 工令, 34.
- 70) 위의 책, p. 34.
- 71) 宋芳松 · 朴貞蓮 외 (2001). 앞의 책, p. 202.
- 72) 박동해 (2002).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 p. 316.
- 73) 이은주 (1994). 한국전통복색에서의 청색과 흑색. 한국의류학회지, 18(1), pp. 121-129.
- 74) 李裕元. 林下筆記 卷38 海東樂府 響鼓.
- 75) 樂學軌範. 卷8 12a.
- 76) 宋芳松 · 朴貞蓮 외 (2001). 앞의 책, p. 212, p. 227.
- 77) 오혜경 (2006). 앞의 책, p. 21.
- 78) 宋芳松 · 朴貞蓮 외 (2001). 앞의 책, pp. 184-185.
- 79) 樂學軌範. 卷9 12.
- 80)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4년 정묘(1867, 동치 6) 3월 6일(경신).
- 81) 樂學軌範. 卷2, 11a.
- 82) 宋芳松 · 朴貞蓮 외 (2001). 앞의 책, p. 228.
- 83) 위의 책, p. 130, p. 131.
- 84) 위의 책, pp. 480-481.
- 85) 위의 책, p. 203.
- 86) 李在淑 (1998).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圖10.
- 87) 宗廟儀軌. 圖說 藍袖衣.
- 88) 宋芳松 · 朴貞蓮 외 (2001). 앞의 책, p. 228.